통도사 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10월 25일~12월 17일

200여 고승 친필 - 선묵 '한자리에'

근대 한국불교의 기둥이었던 근대 고승들의 가르침과 정신 세계를 글과 그림을 통해 되새겨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25일~12월 17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고승 선묵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고승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수집한 고승 선묵 200여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이뤄졌다. 기증품 중에는 석정 스님의 스승인 석두 선사를 비롯하여, 경허, 백학명, 이동인, 만공, 석전, 효봉, 향봉, 화봉, 황곡, 구하, 한암, 경봉 선사 등 20여 고승들의 친필 선묵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직지사, 송광사, 선암사, 수덕사 등 사찰박물관과 동아대, 고려대 등 대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위해 빌린 서산 휴정, 사명 유정 스님의 친필을 비롯해 영파, 금파, 용봉 스님 등 조선 중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고승들의 선묵 50여점도 전시된다.(055)382-1001

■ 서산 휴정(1520~1604) 〈지본묵서〉(조선중기): 선교일치 · 선교통합 사상을 전개해 선교양종을 통합시킨 서산 스님의 친필 유묵 3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배꽃이 흩날려 청허원에 날아드네. 목동의 피리소리 앞산을 지나건만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네.'(청허당집, 권 1) 선적 사유의 깊이를 느끼게 해 주는 서산 스님의 시는 선시의 전형으로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유정, 편양, 소요, 초의 스님 등이 바로 그들이다.

■ 영파 성규(1728~1812) 〈간찰첩〉(조선후기): 영파 스님은 30년간 〈화엄경〉을 공부하여 화엄종지와 선(禪)과 교(敎)의 요체를 얻었다고 전하는데, 법회를 열 때마다 수많은 신도와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스님이 직접 쓴 〈간찰첩(簡札帖)〉은 스님의 정신세계를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직지사성보박물관의 배려로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 경허 성우(1849~1912) 〈지본묵서〉(조선말):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우는 경허 스님은 일찍이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천장암으로 출가 용맹정진 끝에 홀연히 깨닫고 선풍을 드날렸다. 거침없는 무애행으로 유명한 스님은 문장과 필법에 모두 특출하였는데, 이번 전시에는 〈심우도 육곡병풍〉과 〈시고〉 등 유묵 5점이 전시된다.

■ 경운 원기(1852~1936) 〈머루도〉(근대): 근대의 대표적 불교학자인 경운 스님은 선암사를 당대 강학의 중심지로 만든 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님의 수묵화 〈머루도〉는 평소 접하기 힘든 작품으로, 산 속의 머루처럼 머리 깎은 승려라는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선암사성보박물관 소장품이다.

■ 용악 혜견(1830~1908) 〈통도사 황화각 상량문〉(1900년): 용악 스님은 통도사 강원의 대교반이 수학하는 요사채 〈황화각 상량문(皇華閣 上樑文)〉을 직접 지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스님의 〈황화각 상량문〉 내용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은자 기자 eijee@buddhapia.com

◇서산 스님의 '유묵'.

◇퇴경 권상로 스님의 '고승탄금도'.

석정 스님 수집품 200여점

영파 스님 '간찰첩' 첫 공개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로, 번잡한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광막한 우주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사회라는 밀림에서 탈출하여 산곡대기의 대웅봉(大雄峰)에 올라 고독한 단독자가 되어 창공을 대면할 때, 무생물처럼 보이던 우주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인간이 우주의 '말없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우주는 마음(心)과 얼(靈)로 꽉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한(無限)의 바람이 가슴 속으로 불어올 때, 인간은 우주의 입이 되어 노래하고 또 손이 되어 그 노래를 받아 적기 시작한다.

문학의 주제도 이 두 가지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온갖 시시콜콜한 사연들을 능숙한 솜씨로 펼쳐가는 타고난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무한한 시공간 앞에 선 인간의 외경(畏敬)을 절제되고 응축된 언어의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있다. 20세기 문학사에서 월등히 후자의 역할에 전념한 사람이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라는 작가이다. 그는 '사랑' 대신 '꿈'을 택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하는 대신, 정신의 오지(奧地) 탐험을 더 즐긴 것이다.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1)

서구사상의 한계 동양서 발견 "불교는 보물창고"

예리한 지성과 민첩한 상상력으로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을 탐색하던 그는 인간정신의 모든 가능성을 간직한 불교라는 거대한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게 된다.

넓디넓은 현묘한 정신세계를 맘껏 유영해본 그는 서구의 전통적인 사유체계가 너무도 편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있는 것(存在)'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이성이라는 능력에만 매달린 결과, '없음'을 가능케 해주는 '없이 있음(眞空妙有)'의 광대한 세계를 놓치고 말았다고 본 것이다. 말하자면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 태양 빛에 눈이 멀어 그 뒤에 가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구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인식의 틀 속에 갇혀있는가를 깨우치게 하는 글을 썼다. 방안에 갇혀 태양이라는 촛불(燭光)만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과감하게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별빛(星光)이 쏟아지는 들판의 시원한 바람을 쏘이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20세기 서구 지성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조타수의 역할을 한 선구자가 되었고, 그 결과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움베르토 에코 등 현대를 풍미한 사상가 가운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창조자'라고 부른 것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多元主義), 상호텍스트성, 독자수용미학 등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참신한 인문학적 사고방식들이 '아이디어의 보석상자' 혹은 '사상의 디자인집(集)'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발상이 보르헤스가 불교에 심취한 결과 얻은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문학평론가

2002년 불교달력 한장한장 신심 오릇

북한사찰 · 금강산 등 담아

불기 2546년(2002년) 임오년 달력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사찰 사진에서부터 스님들의 그림과 서예, 꽃꽂이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재 조계사 인근 불구점에는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보덕암 등 북한의 사찰과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달력이 여러 종류 나와 있다. 또 스님들의 그림과 해외 불교성지 등을 소재로 한 달력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불교 달력의 단골 소재였던 사찰도 전경위주에서 벗어나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담고 있다.

가을맞이 茶행사

가을을 맞아 차를 주제로 한 행사들이 잇달아 열린다.

통도사는 24일 오후 1시 제3회 부도헌다제를 봉행한다. 통도사 창건 이래 가람을 수호하고 전법에 진력해 온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헌다제는 통도사 말사에 소속되어 있는 6개팀의 다회를 중심으로 차와 다식을 즐기며 전통사찰의 헌다공양을 재현할 예정이다.(055)382-1001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한 다악(茶樂) 공연 '2001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놓기-차 마시기 좋을 때 풍정'은 26일-2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다악〉음반 제5집 출반 기념 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국창작음악회의 창작 다악 연주와 어우러진 설치미술, 행다 퍼포먼스 등이 선보인다.(02)2272-2152

제10회 초의문화제는 11월 3일 오전 9시 대둔사 초의관에서 개막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부도전과 초의선사 동상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 의식을 비롯해 행다시연, 부산 동래학춤,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또 초의상 시상식도 열리며, 1년생 차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열린다.(061)534-5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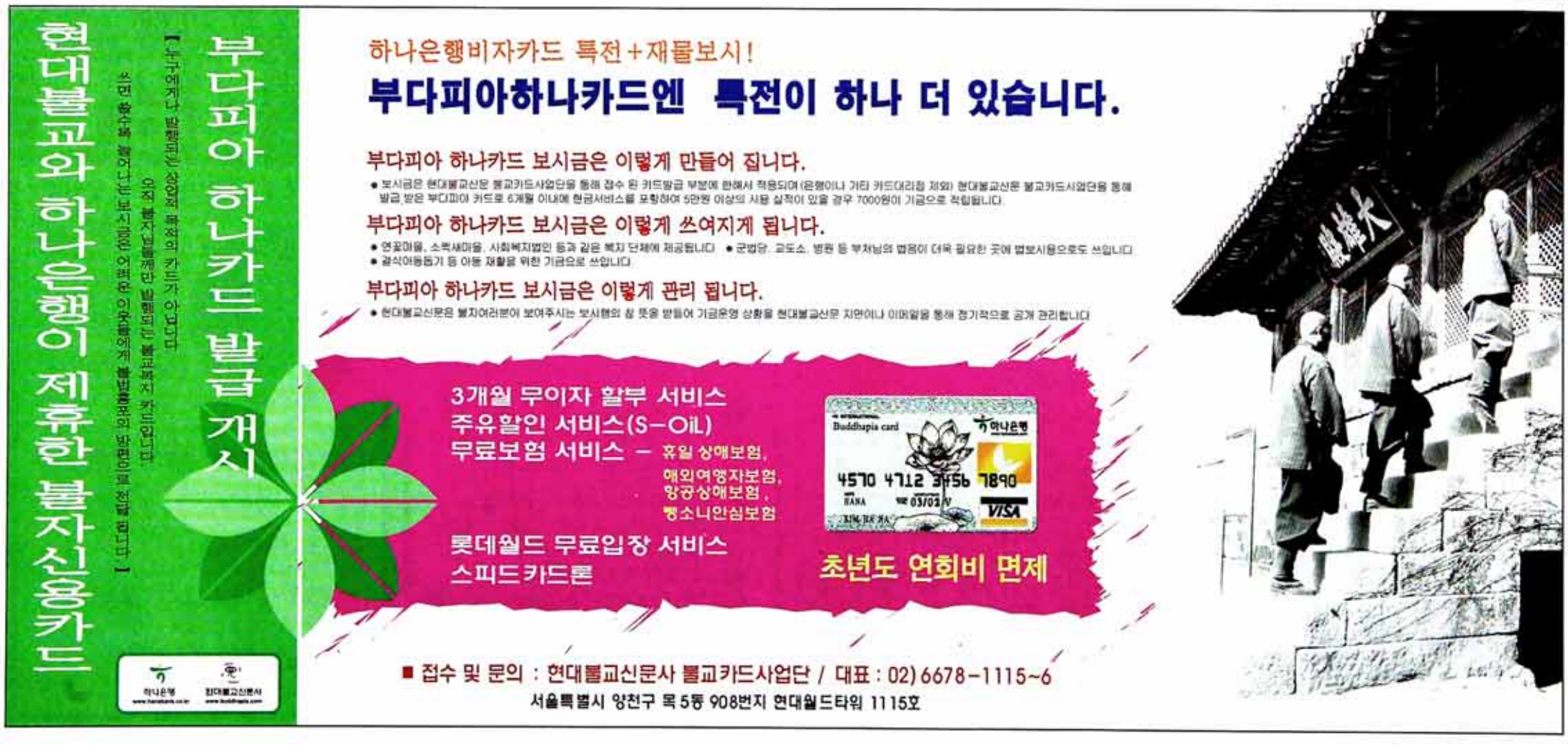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불교방송 가을프로 개편

'무상을 넘어서' '오늘을 이끄는 불교' 청취자에 첫선

불교방송이 가을을 맞아 15일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했다.

우선 이번 개편으로 첫 전파를 타게 된 프로그램은 '무상을 넘어서'(매일 밤 9시25분~밤 9시40분)와 '오늘을 이끄는 불교'(일요일 오전 8시20분~오전 9시)다. '무상을 넘어서'는 음악과 불교문화이 어우러진 명상과 사색의 시간. 경전의 주옥같은 경구들과 불교시, 잠언들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소개된다.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역사를 비롯해 과학,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의 학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지금은 불교 시대'에서 이름을 바꾼 '무명을 밝히고'(오후 5시10분~오후 6시)는 불교 영어 한마디, 세계의 불교 등 새 코너로 단장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